부흥백제국의 성립과 정치적 변동

- 복신의 정국 주도와 풍왕의 대응을 중심으로 -

김 병 남*

1. 머리말
2. 풍장의 왕위계승 의미와 귀환 시기
3. 복신의 정국 주도와 풍장의 위상
4. 복신의 실패와 풍왕의 친위정변
5. 맺음말

1. 머리말

서기 660년 6월 21일에 당군이 백제를 침공하기 위해 덕물도에 도달하였다. 백제에 위기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후 7월 9일 백제는 계백을 보내 황산벌에서 김유신의 신라군을 방어하였지만 실패하였고, 결국 7월 12일에는 수도인 사비성을 포위당했다가 마침내 7월 18일에 의자왕이 항복함으로써 국가의 운명이 꺾이게 되었다. 채 두 달이 안 되는 기간이었다. 황산벌 전투로부터는 따지만 9일 만의 일이다. 신라와 당나라의

* 국가기록원 학예연구사

www.kci.go.kr

연합군은 갑자기 나타나서 백제 서울을 에워싼 지 6일 만에 전쟁 상황을 종료시켰고, 백제라는 나라는 사라져버린 것이다.

그렇지만 백제와 신라의 전쟁은 빈번한 일이었기에 백제 사람들은 패전을 절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더군다나 왕조의 단절이 '한순간의 실수'일 뿐, 정말 전쟁 자체에서는 패배한 것이 아니라고 믿었던 것 같다. 그리고 정신을 차렸으니 이제 정말로 한번 해 보자는 태세였다.[1] 왜냐하면 그 이후의 과정이 우리가 익히 아는 백제 부흥운동의 줄기찬 전개였기 때문이다.

백제 부흥운동 세력은 급속도로 확산되어 이미 국가 재건의 열쇠인 왕위 계승과 관련하여 왜에 체류 중이던 풍장의 귀환이 공식 요구한 상태였다. 풍장의 영입과 왕위 계승은 부흥 백제세력의 중앙지휘부를 견고하게 하고, 그 지휘 아래 조직적 명령체계를 갖추어 단기간에 국가의 부흥을 완성시키는데 중요한 필수 조건의 하나였던 것이다.

하지만 의자왕을 계승하는 왕으로서 풍장의 귀환이 갖는 딜레마도 있었다. 부흥운동이란 것은 기존의 정치체제가 무너진 후 권력의 공백을 최종적으로 누가 메우느냐는 문제로 귀결된다. 백제 사람들의 눈에 정통성을 가진 전 왕조의 출생 중에서 계승하는 것은 이의가 없겠지만 문제는 그가 실질적인 위상과 권력을 가지고 왕위를 계승하는지, 아니면 권력자는 따로 있고 상징적인 존재로 내세워지는지에 있었다.

서기 661년 말에서 662년 초에 백제의 부흥운동은 절정에 달했다. 그리고 그 시점에 풍장은 백제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풍장과 복신 사이에 권력 다툼이 재연되고 말았다. 그동안 이에 대해서는 많은 언급이 있었음[2]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계기와 과정을 거쳐서 풍장과

1) 구대열, 『삼국통일의 정치학』, 까치, 2010, 384쪽.
2) 이와 관련된 연구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노중국, 『백제부흥운동사』, 일조각, 2003.
공주대 백제문화연구소 편,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문화사, 2004.
김영관, 『백제부흥운동연구』, 서경문화사, 2005.
노중국, 『백제부흥운동 이야기』, 주류성, 200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www.kci.go.kr

복신이 갈라서게 되었는지를 좀 더 세밀하게 따져보지는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남은 기록들을 토대로 서기 661년 9월 풍장의 왜국 출발 시점으로부터 서기 663년 6월의 복신 제거까지의 1년 10개월 사이 부흥운동 내부의 상황 전개와 함께 당시 부흥백제국을 둘러싼 외부적인 요소, 즉 나·당군의 움직임까지 결합하여 좀 더 세밀하게 살펴 백제 부흥운동의 성패에 대해 재음미해 보도록 하겠다.

2. 풍장의 왕위계승 의미와 귀환 시기

기록에 의하면 부흥세력이 부여풍의 귀환을 요청한 것은 서기 660년 10월[3]이었다. 당시 백제지역은 각처에서 부흥군이 일어나 일시 단절된 국가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중이었다. 복신이나 도침·정무·여자진 등의 부흥세력은 침략군을 몰아내고 단절된 왕통을 이으면 국가는 계속된다고 믿었다. 따라서 당시 백제 사람들은 '위험한 국가 상황을 다시 안정시켜 유지하려는' 노력으로 의자왕이 항복한 7월 18일로부터 두 달 만인 서기 660년 9월 23일에 사비성을 포위·공격하고, 10월에는 왜에 사신을 보내 부흥세력의 구심점으로써 왕자 풍장의 왕위 계승을 요청한 것이었다.

이러한 노력은 다시 6개월 뒤인 서기 661년 4월에도 나타난다. 『일본서기』에는 복신이 풍장으로 여겨지는 왕자 규해[4]의 송환을 재차 요청한 것이다. 이 시기는 부흥세력이 두량이·고사비성 전투(661년 3~4월)에서 승리하여 기반을 고착시켜 나갈 때였다.[5] 이 전투의 승리로 '남방제성(南方諸城)'이 모두 귀속되었다[6]고 할 정도로 부흥세력의 기세가 높았던

양종국, 『의자왕과 백제부흥운동 엿보기』, 서경문화사, 2008.

3) 『일본서기』 26, 제명 6년 10월.

4) 김영관, 앞의 책, 122쪽. 이와는 달리 규해를 풍장의 동생으로 보기도 한다.(노중국, 앞의 책, 2003, 255쪽.)

5) 김병남, 「백제 부흥 전쟁기 고사비성 전투의 의미」, 『정신문화연구』 126, 2012, 280~305쪽.

6) 『삼국사기』 7, 「신라본기」 7, 문무왕 11년.

www.kci.go.kr

상태였다. 따라서 부흥세력에게는 풍장의 조속한 귀국과 등극을 통해서 새로운 국가 수립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당시 백제지역은 중앙정부와 지배층이 일순간에 사라져버려 지방세력은 각기 독자적 생존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서기 661년 4월 이후 사비정부를 대체할 주류성 체제가 어느 정도 구현되자 당과 신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정국을 관망하던 지역세력들이 일순간 부흥군에 호응하였던 것이다.

이에 복신은 부흥세력의 방어체제 강화를 위해 지역세력의 결속에 주력하였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밀착시켜 부흥세력으로부터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면 효과적이고 정확한 정치 일정을 제시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왕위의 승계를 통해 백제의 '재조(再造)' 내지는 '계속'을 실행할 능력과 힘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고, 그 시작점은 바로 풍장의 조기 귀국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장의 귀환은 알 수 없었던 것이다.

그로부터 다시 풍장의 귀환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기록이 나타나는 것은 3개월 후인 서기 661년 9월이었다.

① 9월 황태자가 나가쓰노(長津宮)에 가서 백제 왕자 풍장(豊璋)에게 직관을 주고, 또 오오노오미코모시키(多臣蒋敷)의 누이를 아내로 삼도록 했다. 그리고 대산하(大山下) 사이노무라치아치마사(狹井連檳榔)·소산하(小山下) 하타노미야츠코노다쿠쓰(秦造田來津)을 파견하여 군사 5천여 명을 거느리고 본국까지 호위해 보내게 하였다. 이에 풍장이 입국할 때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나라의 정사를 모두 맡겼다.(『일본서기』 27, 천지 즉위 전)

② 여름 5월 대장군 대금중(大錦中) 아츠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邏夫連) 등이 수군 170척을 거느리고 풍장 등을 호위하여 백제국에 호송한 후 칙서를 내려 풍장이 그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 또한 복신에게 금책을 주어 그 등을 어루만지면서 작록을 포상으로 주었다. 이때에 풍장 등은 복신과 더불어 머리를 조아리고 칙서를 받으니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www.kci.go.kr

그런데 위의 기록에 따르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서기 661년 9월만이 아니라 이듬해인 662년 5월이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사료 ①에는 백제 왕자 풍장을 "군사 5천 명에게 호위하게 하여 본향으로 보냈다(率軍五千餘 衛送於本鄕)"고 나오는데, 사료 ②에도 분명 "수군 170척을 보내면서 풍장 등을 백제국에 보냈다"고 하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본서기』는 풍장의 귀환에 대해 두 종류의 시기를 병기하여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킨 꼴이 된다.

같은 '풍장'에 대한 기사들인데도 귀국 시기가 다른 것은 『일본서기』 찬자가 사용한 원자료가 달랐기 때문이란 견해가 있다. 즉 사료 ①은 서기 661년 9월에 풍장을 호위하여 따라간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관련된 가기(家記)를 참고하였으며, 사료 ②는 아츠미노히라부노무라치(阿曇比邏夫連)의 활약상과 관련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서기』에 귀국 시기가 두 가지인 것은 편찬자의 착오가 아니라 참고자료 때문이며, 편찬자는 『일본서기』 본문 내용의 통일보다는 원자료를 그대로 싣는 것을 존중하였다는 것이다.[7] 이는 결국 두 기록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뜻인데, 그렇다면 이를 인정할 경우 풍장의 백제 귀국 시점에 대해 합리적인 이해나 해석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에 풍장은 서기 661년 9월에 치쿠시(筑紫)로 와서 나카노오에(中大兄) 황자로부터 책봉을 받은 후 바다를 건널 기회를 엿보았지만 결국 이듬해 5월에야 5천의 구원군을 실은 170척의 선단과 함께 귀환한 것[8]이라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두 기사 중 하나 만을 풍장의 귀국 시기와 연관시킬 것이 아니라 그의 귀환 시점과 이후 백제에서의 풍장의 상황, 정확히는 그의

---

7) 박재용, 「『일본서기』에 인용된 도현의 『일본세기』」, 『한국고대사연구』 47, 2007, 130쪽.

8) 이도학, 『새로 쓰는 백제사』, 푸른역사, 1997, 240쪽.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우리가 몰랐던 왜군의 백제파병 이야기-백촌강전투』, J&C, 2002, 155~156쪽.
심정보, 「부흥군의 봉기와 부흥활동의 전개」, 『백제의 멸망과 부흥운동』 백제문화사대계 연구총서 6, 2007, 200쪽.

www.kci.go.kr

정식 즉위 시점에 대한 것으로 추정함이 어떨까 한다. 즉 부여풍의 귀환은 부흥세력이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1년여인 서기 661년 9월이지만 백제 도착 이후 정세 변화에 따른 부흥세력 내부의 정치적 요동이 그의 정식 즉위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체되도록 하지 않았나 하는 것이다.

분명한 점은『구당서』백제전에는 "이때는 용삭 원년 3월이다…… 얼마 후 복신이 도침을 죽이고 그 군대를 아우르니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다"고 하여 용삭(龍朔) 원년 즉 서기 661년에 부여풍이 귀국하였고, 복신이 도침을 죽인 후에는 제사만 주관하는 형식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하였다. 이를 따르면 적어도 서기 661년 3월 이후에는 부여풍 즉 풍장이 백제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일본서기』제명 6년 10월 기사에도 "왕자 풍장과 처자를 그의 숙부 충승 등과 함께 보냈다. 그를 정식으로 보낸 때는 7년에 보인다"고 기록하여, 풍장이 백제로 돌아간 시기를 제명 7년이라 하여 서기 661년임을 확인해준다. 그러므로 이들에 근거하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사료 ①의 서기 661년 9월[9] 이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본다.

그렇다면 서기 662년 5월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이와 관련해서는 사료 앞부분의 "送豊璋等於百濟國"보다는 "以豊璋等使繼其位"라는 부분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풍장이 그 왕위를 잇도록 하였다"는 진정한 의미가 비로소 정식 즉위식을 통해 백제의 왕이 되었다는데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다.

이러한 추정을 염두에 두고 풍장의 귀환 과정을 좀 더 추적하면서 위 두 기록이 갖는 접합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풍장이 왜국을 떠난 시점은 언제였을까? 사료 ①에 따르면 풍장은 떠나기에 앞서 몇 가지 중요한 의식과 행사를 치러야 했다. 하나는 왜의 '직관(織冠)'을 수여받는 일이었다. 이는 대화개신(大化改新)으로 서기 647년에 제정된 19단계 관위 중 최고 관직을 말하는 것으로, 이에

9) 변인석,『백강구 전쟁과 백제·왜 관계』, 한울아카데미, 1994, 161쪽.
노중국, 앞의 책, 2003, 120쪽.

www.kci.go.kr

대해서는 왜가 풍장을 신하로서의 위치에 두려 했던 것[10]이라고 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그런 의식 수행에 따르는 일정 소요에만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아내를 맞이한 사실이다. 풍장이 왜에 간 것이 서기 643년의 일이므로 약 20년이라는 세월을 왜에서 보낸 것이 된다. 당연히 혼자 살았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는다.[1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진 정략결혼의 배경이나 의미 등을 언급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 사실에서도 주목할 것은 그로 인한 일정과 시간이다.

왕실의 관직 수여나 국혼(國婚)에 준하는 행사 등은 각종 의식 절차로 인해 상당한 노고와 기간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런 행사들을 소화해 낸 풍장과 그 일행이 왜지(倭地)를 떠나게 된 시기는 빨라야 9월 하순[12]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살펴볼 문제는 풍장이 부흥세력의 거점인 주류성(부안)[13]에 언제 도착했는가 하는 점이다. 즉 풍장은 현재의 후쿠오카(福岡)의 나가쓰노(長津宮)를 출발하여 주류성까지는 얼마 만에 도달했나이다. 이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항해 기록이 남지 않았으므로, 유사한 기록을 통해 추정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단초를 제공하는 것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 『이길련박덕서(伊吉連博德書)』에는…… 2척의 배로 오당(吳唐)의 길을 이용하여…… 8월 11일에 치쿠시(筑紫)의 오오쓰우라(大津浦)를 출발

10) 이성범 역(도야마 미쓰오 저), 앞의 책, 162쪽.

11) 변인석, 앞의 책, 103쪽.

12) 이렇게 보는 데에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왜국의 제명(齊明) 여왕이 사망한 것이 서기 661년 7월 24일이기 때문에 국상 기간인 8~9월(변인석, 앞의 책, 44쪽.)에 풍장이 참석하지 않고 귀국할 수는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심정보, 앞의 논문, 197쪽.) 이러면 풍장의 귀국 시기는 좀 더 늦어져 10월로 넘어갔을 수도 있다.

13) 주류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한산 건지산성과 부안 위금암산성 그리고 홍성, 연기 당산설 등이 제기되었으나 현재는 부안설이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이도학, 앞의 책, 245~247쪽; 노중국, 앞의 책, 2003, 195~196쪽; 김영관, 앞의 책, 17쪽.) 아울러 주류성을 중방성 즉 고사성으로 보는 견해(서정석, 「백제 백강의 위치」, 『백산학보』 69, 2004, 222쪽.)도 제기되었는데 이 또한 주류성이 부안 일대에 있었다고 보는 것의 연장선으로 이해된다.

www.kci.go.kr

하였다. 9월 13일에 백제의 남단에 있는 섬에 이르렀는데 섬의 이름은 명확히 알 수 없다. (9월) 14일 인시(寅時)에 2척의 배가 연이어 대해(大海)로 접어들었다.……(『일본서기』 26, 제명 5년 7월)

위는 2년 전인 서기 659년에 왜에서 견당사를 파견하였을 때의 항로를 적은 것으로, 당시 견당사는 북큐슈(北九州)를 출발하여 절강성의 괄주(括州)를 거쳐 낙양에 이르는 코스를 밟았다. 그런데 이 견당사의 출발점인 오오쓰우라(大津浦)가 바로 현재의 후쿠오카 하카다(博多) 만이다. 따라서 풍장의 출발지와 동일한 곳이었다.

당시 견당사의 배는 '오당지로(吳唐之路)'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북큐슈를 출발하여 한반도 남서부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의 강남지역으로 직행하는 항로를 가리킨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달이 지난 후에야 백제 남단의 섬에 이르렀고, 이어 대해로 접어들었다는 것으로 보아 적어도 후쿠오카에서 제주 남쪽을 지나 동중국해로 나가기까지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7월 하순에서 8월 하순은 동중국해의 기상이 비교적 안정되어 남동 내지 남풍 계열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견당선은 대개 여름에 일본을 출발하는 것이다.[15]

따라서 서기 661년 9월의 풍장 일행 또한 사료 ①에 나오는 나가쓰노를 출발점으로 삼았다면 백제 남단까지는 최소 한 달 이상이 소요되었을 것이다.[16] 또 풍장이 이용하였을 코스는 견당사의 오당지로와 달리 남해안의

14)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백제사자료역주집-일본편-』, 2008, 174쪽 각주 845번.

15) 삼국시대의 항해에는 계절풍과 해류의 영향을 많이 받아 신라에서 일본으로 갈 때는 거의 겨울 계절풍을 이용하기 때문에 10월에서 12월 사이에 집중되는 반면에 일본에서 신라로 향하는 경우에는 봄에서 초여름, 가을에 걸쳐 남풍 계열의 바람을 이용해야만 순조롭다.(윤명철, 「신라하대의 해양활동연구」, 『국사관논총』 91, 2000, 208~209쪽.)

16) 600년 후인 고려 원종 15년(1274)에 있은 여·원 연합군의 일본 원정 시에도 군사 25,600명에 전함 900척이 동원되어 10월 3일에 합포(마산포)를 출발, 10월 5~6일에 대마도 기습, 10월 14일에 일기도 공격, 10월 19일 하카다만 도착의 순으로 이루어져서 마산에서 하카다 사이의 항해기간이 보름 이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로 미루어 보면 하카다에서 거제 앞바다까지의 거리도 겨울의 역풍 속에서 진행되었을 풍장 선단의 항해기간은 생각 이상으로 길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www.kci.go.kr

리아스식 해안을 따라 이동하는데다가 다시 그 남단을 거쳐 북으로 서해안을 따라 주류성(부안)까지의 거리가 더해진 것이기에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특히 연안항로 선택 시에는 섬들이 많고, 조류의 움직임이 복잡하면 안전한 항로를 선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한반도의 서남해안은 조류의 영향력이 매우 크고 방향의 지역적 편차도 심해 신경을 기울여야 한다.[17] 아침저녁으로 해풍과 육풍이 바뀌는데다가 바람이 주위 지형과 부딪혀 흐름이 변하는 등 배의 운항이 매우 불규칙적이고, 운항 일정도 늘어지기 십상이다.

더군다나 서기 659년의 견당사는 2척의 배에 불과했지만 서기 661년 9월의 풍장 일행은 휘하에 5천의 군사까지 동반하였고, 뿐만 아니라 각종 장비와 무기·군량 등까지 한꺼번에 움직였을 상황이었다. 따라서 그 규모는 사료 ②의 표현처럼 수군 170척[18]이 동원될 정도였던 것이다. 이렇게 되면 풍장과 5천 군사를 실은 선단의 이동 속도는 더욱 떨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오늘날처럼 동력을 전달하는 모터가 달리지 않은 전근대 이전 시기 선박의 경우 순전히 사람과 바람[19]의 힘을 이용해야 만이 항해가 가능하였기에 속도 또한 생각 이상으로 나오지 않았고, 더불어 기상

17) 고경석, 「신라의 對中 해상교통로 연구」, 『신라사학보』 21, 2011, 101쪽.

18) 서기 6~7세기 왜의 병선(兵船)은 본질적으로는 수송선인데 크기는 길이가 10m가 약간 넘고 20명 정도가 탑승(김대욱, 『전쟁의 시대 한국고대사 700년의 기록』, 채륜, 2012, 358쪽; 변인석, 앞의 책, 196쪽.)한다는데, 이럴 경우 풍장의 군사 5천이 170척에 나눠 타면 1척당 29~30명이 되어 승선 인원 초과가 된다. 하지만 '백제선(百濟船)' 건조(『일본서기』 25, 효덕 백치 원년) 사실로 보건대 대형 선박도 일부 포함되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본래 30명 정도로 추정하기도 한다.(新川登龜男, 「백강전쟁과 고대 동아시아」, 『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347쪽.) 다만 명나라 말기 모원의(茅元儀)가 지은 『무비지(武備志)』 단계에서도 '왜인(倭人)의 배는 매우 허약하여 대선은 300명, 중선과 소선은 50~100명을 수용할 정도이나 배 밑이 평평하고 돛이 하나라 순풍에만 사용하고 폭풍이나 미풍(迷風)을 만나면 돛이 넘어지고 노가 흔들려 대양을 건널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비록 중대형의 선박이 있더라도 제조 기술의 미흡함(정진술 외, 『다시 보는 한국해양사』, 해군사관학교, 2007, 307~308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19) 서기 838년 일본의 견당사 파견 때 참여한 엔닌(圓仁)의 기록에는 출발 때인 6월 13일에 "바람이 불지 않아 사흘을 머물렀다"거나 6월 17일에도 "바람이 없어 닷새 동안 머물렀다"는 등 항해에 바람의 영향이 많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신복룡 역, 『입당구법순례행기』, 정신세계사, 1991, 19쪽.)

www.kci.go.kr

변화 등의 제약 조건도 무시할 수 없었을 것이며, 원활한 식량·식수의 공급 문제[20]와 비좁고 불결한 공간에서 빈발하는 전염병[21] 등도 있어서 수시로 육지에 정박하여야 했고, 때때로 항해 중의 진법 훈련[22]까지 고려한다면 생각 이상으로 항해거리나 기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제반 여건을 고려한다면 적어도 견당사의 움직임보다 2배인 60일 이상은 잡아야 주류성 근방에 도달할 수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풍장이 9월 말에 후쿠오카에서 출발하였다면 아무리 순조롭게 부안 주변에 도달하여도 거의 11월 말이었으리라 생각된다. 하지만 바다에서의 항해는 언제나 예측불허[23]였기에 실제 풍장 일행은 좀 더 늦은 12월이 되어서야 도달한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 ③ 이 해에…… 또 일본의 고(구)려 구원군 장수들이 백제 가파리의 해안에 정박하여 불을 피웠다. 배에 구멍이 생겨 가는 소리가 났는데 화살이 날며 우는 소리 같았다. 어떤 사람이 "고(구)려,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고 하였다.(『일본서기』 27, 천지 즉위전)

위 사료 ③은 앞에서 언급한 사료 ①과 같은 해의 기록이다. 『일본서기』에는 사료 ①의 서기 661년 9월 기사에 이어 12월에 고구려와 당군 사이의 평양성 공방에 관한 기록을 전한 뒤에 바로 이 기록을 적어 놓았다. 이를 보면 '이 해[是歲]'는 적어도 12월 이후에 일어난 사건과 연관된다

---

20) 서기 660년 백제 중앙정부의 붕괴에 따라 서남해안 일대 백제 관할지역의 해상 보급 기능이 원활하지 않았을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21) 엔닌은 "사람마다 설사로 고생하여 배의 출발이 한결같지 않았다"는 기록도 적었다.(신복룡 역, 앞의 책, 31쪽.)

22) 『일본서기』 천지 2년 8월 기사에는 백강구 전투의 패인으로 "기상을 관찰하지 않음(不觀氣象)"과 "뱃머리와 고물을 돌리지 못함(艫舳不得廻旋)"을 들고 있어 수군 훈련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23) 삼국이나 왜국보다 더 발달된 선박과 항해술을 지녔을 수·당도 바다를 건너 한반도로 오는 작전 때에는 선박 파손과 병사의 익사라는 거대한 손실을 왕왕 입을 정도라 하였다. (胡戟, 「中國 水軍과 白江口 戰鬪」,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254쪽.)

www.kci.go.kr

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기록은 종래 왜 왕권과 고구려 사이의 정보 교류와 군사적 연계 가능성에 연관된 것으로 간주하여 '고구려 구원군'이라는 표현을 그대로 인정하는 견해도 있다.[24] 실제 『일본서기』에는 이 시기 왜가 군대를 파견하면서 백제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와 관련이 있다는 식의 표현을 하기도 하였는데 그러한 예는 다음에서도 볼 수 있다.

④ 이 달에 당인(唐人)과 신라인(新羅人)이 고(구)려를 쳤다. 고(구)려가 우리나라에게 구원을 요청하여 장수를 보내 소류성(疏琉城)에 진을 치도록 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⑤ 여름 5월 계축삭에 오노우에(犬上君)[이름이 빠졌다]가 달려가 병사의 일을 고(구)려에게 알리고 돌아왔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위의 기록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고구려를 구하러 갔다'거나 '고구려가 구원을 요청하여 장수를 보냈다'거나 '군사에 관한 일을 고구려와 상의하고 돌아왔다'는 것으로 파악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위의 기록을 신뢰하여 고구려와 왜 사이에 군사적 연합도 생각해 보게끔 한다.[25] 하지만 위의 기록들을 자세히 음미할 때 드는 의문은 고구려 구원군이었음에도 그 종착점이 왜 하필 가피리 해변이나 소류성에서 끝나는가 하는 점이다.

사료 ③에서 고구려 구원군이 도착한 곳은 가파리 해안이라 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전북 부안 일대로 추정하는 곳이었다.[26] 또 사료 ④에도 고구려가 구원을 요청했는데도 왜군이 진을 친 곳은 소류성 즉 주류성[27]

24) 연민수, 「6~7세기 고구려의 대왜관계」, 『한일관계사연구』 26, 2007, 34쪽.
25)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84쪽 각주 914번.
26) 전용신 편,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486쪽
충남역사문화연구원 편, 앞의 책, 184쪽 각주 915번.
27) 新川登龜男, 앞의 논문, 342쪽.

www.kci.go.kr

이었다. 그리고 사료 ⑤의 '병사를 아뢴다(告兵事)'는 것도 고구려 구원을 위한 군사 논의였는지 확신할 수가 없다. 오히려 왜군이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출병한 일(兵事)'에 대해 논의한 것이라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사료 ③에서 언급된 '고구려 구원군'이라는 것도 엄밀히 말하면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와 관련되었다고 보는 것이 순리에 맞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백제 구원군은 백제 가파리 해안에 정박하였을 때에는 한겨울의 험난한 파도와 싸우면서 계속된 항해로 인해 배에 구멍이 숭숭 뚫릴 정도로 지난한 여정을 겪었음을 짐작케 하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선단이 12월에 이르러서야 간신히 목적지에 이른 것이 아닌가 한다.

이처럼 풍장과 그 일행의 백제 귀국 여정은 근 3개월, 적어도 70일 이상이 소요된 험난한 항해를 거쳐서야 이루어진 것이었다. "백제가 끝내 망할 징조인가"라는 어떤 사람의 말은, 애초에는 처음 시도되는 대규모 선단의 왜에서 백제에 이르는 바닷길이 생각보다 어려웠기에 원조를 보낸다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음을 스스로 체득한 넋두리였을지도 모른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풍장의 백제 귀환 시기는 종래의 서기 661년 9월이나 662년 5월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즉, 별개의 사건을 설명하는 것 같은 관련 기록들을 조합하여 살펴보면 풍장이 백제로 귀환하기 위해 출발한 것은 서기 661년 9월이 맞지만 목적지인 백제 주류성 근방에 도착한 것은 만 2달 이상의 험난한 항해 끝인 서기 661년 12월이었다고 추측된다.

3. 복신의 정국 주도와 풍장의 위상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풍장은 서기 661년 9월 이후에 비로소 귀국길에 오른 것을 추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가 돌아오는 당시의 백제 땅은 부흥세력, 당, 신라가 함께 얽혀 있는 역동적인 공간이었다. 그리고

www.kci.go.kr

어느 한쪽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지 않은 절반의 승리와 절반의 실패를 야기하는 불안한 상태가 지속되던 전쟁터였다.

특히 서기 661년 9월은 중요한 이해 당사자인 신라가 부흥세력과 당 주둔군 사이의 미묘한 관계[28]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던 때로, 향후 부흥 백제세력의 정치적 동향에도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게 되는 옹산성 전투가 치러졌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따르면 서기 661년 6월에 당이 고구려 정벌을 개시하면서 신라에게도 군대 동원을 요청하자 문무왕이 7월에 대장군 김유신을 필두로 24명의 장군과 대당, 귀당, 상주정, 하주정, 남천주정, 수약주정, 하서주정, 서당, 낭당, 계금당 등 10개 군단을 동원하여 고구려를 공격하려고 이동하던 중에 시이곡정에 이르렀는데 옹산성에 진을 친 백제 부흥군이 진격로를 차단하자 전투가 벌어져 9월 27일에 옹산성을 함락시켰다고 나온다.[29]

당이 고구려의 배후를 치기 위한 요청으로 이루어진 신라군은 거의 5만에 육박하였다고 보는 견해[30]도 있는데 이 대규모 신라군의 공격 목표는 당연하게도 고구려 평양성이었다. 하지만 그 군대의 실제 목표는 고구려가 아니라 백제 부흥세력의 옹산성이었다.

공교롭게도 풍장 일행이 군사 5천과 함께 왜국을 출발한 9월 말에 부흥을 위해 노력하던 백제 땅에서는 신라와 부흥세력 사이에 향방을 좌우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전투가 벌어졌던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부흥군은 옹산성이 함락당하여 성을 사수하던 장수들과 수천 명의 병사들을 잃었고, 계속해서 그리 멀지 않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우술성(대전시 대덕구 읍내동 수척골)[31]마저도 공격당하여

28) 당 주둔군과 부흥군 사이의 외교적 교섭에 관해서는 김병남, 「백제 풍왕 시기의 정치적 상황과 부흥운동의 전개 -도침의 몰락과 복신의 주도 배경을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 130, 2013, 참조.

29) 『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원년.

30) 이상훈, 「신라의 군사 편제단위와 편성규모」, 『역사교육논집』 46, 2011, 185~187쪽.

31) 심정보, 「백제의 부흥운동」, 『충청남도지』 4, 2006, 490쪽.
문안식, 『백제의 흥망과 전쟁』, 혜안, 2006, 501쪽.

www.kci.go.kr

다시 부흥군 1천여 명이 죽임을 당하는 패배를 맛보았다. 요충지인 옹산성과 연이은 우술성의 함락은 백제 부흥군에 큰 타격이었다. 두 전투에서 전사한 군사의 숫자만 해도 수천 명이나 되었고, 더구나 이제까지 옹진 주둔 당군의 목을 조르던 군량 수송로마저 일부 뚫리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부흥세력의 향후 전략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된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옹산성 전투의 더욱 중요한 결과는 따로 있었다. 풍장의 귀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려는 국가 재건의 일정에 중대한 차질을 빚은 것이다. 당시 복신은 풍장의 귀환과 등극이라는 일정과 함께 지역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국가 재건에 노력하는 중이었다. 그런데 백제와 당의 교섭 진행과 그에 따른 신라의 반발은 유기적 지역 네트워크가 공고해지기 전에 한 부분을 와해시키고 말았고, 나아가 지역세력의 일부가 다시 신라에 투항하는 인적 네트워크의 결속마저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32] 우술성의 함락 시에 나타난 조복과 파가의 투항은 연쇄적인 반응을 일으켰는데, 서기 662년 2월에 탐라국주 도동음률(徒冬音律)이 신라에 항복한 것[33]은 그러한 예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 전개는 연쇄적으로 부흥세력 중심부의 정치적 변동까지 야기하였다. 즉『구당서』열전의 표현처럼 "얼마 있다가 복신이 도침을 살해"한 결정적 계기가 바로 이 시점인 것이다. 도침의 몰락에 대해서는 서기 661년 2월의 옹진강구 전투 패배 때문[34]이라거나, 옹진강구 전투의 패배에도 불구하고 계속 최고사령관 행세를 하여서라거나[35], 복신은 풍왕을 상징적인 존재로만 여겼는데 도침은 깍듯이 군신의 예를 갖추자 자신의 입지가 좁아질 것을 우려하여서 유인궤의 사자를 만난 것을 이적행위라는 명분으로 살해하였다[36]고 보는 견해들이 있었다.

하지만 옹진강구 전투는 이어진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로 상쇄될

32) 김병남,「백제부흥전쟁기의 옹산성 전투와 그 의미」,『전북사학』42, 2013, 65쪽.
33)『삼국사기』6,「신라본기」6, 문무왕 2년 2월.
34) 김영관,「백제부흥운동의 실패 원인」,『선사와 고대』19, 2003, 287쪽.
35) 노중국,「부흥백제국의 성립과 몰락」,『백제부흥운동사연구』, 서경, 2004, 101쪽.
36) 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04쪽.

www.kci.go.kr

만한 것이었고, 이후 도침의 정국 주도를 보더라도 결정적인 계기는 아니었다. 그러한 과정이 쌓여 불신이 드러났겠지만 중요한 점은 서기 661년 4월 두량이·주류성 전투의 승리 이후, 서기 661년 6월 신라 무열왕의 사망과 문무왕의 즉위, 그리고 당의 고구려 정벌이라는 유리한 환경에서, 대내적으로는 흩어진 지역세력을 규합하여 국가 부흥을 공식화하고, 대외적으로는 풍장의 귀환으로 백제국의 성립을 고착화하려는 정치 일정이 모두 흐트러져버린 것에 있었다. 따라서 백제 부흥세력, 그 중에서도 복신에게는 서기 661년 9월의 상황 전개가 백제 재건의 미래에 악영향을 끼치는 중대 사건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를 계기로 복신 중심의 정치세력에 의한 도침 제거라는 정국 변동이 단행되었으리라 추정된다.

그러므로 풍장이 가파리 해변에 배를 댄 12월 이전에 이미 부흥 백제 세력 내에서는 복신의 도침 제거와 정권 장악이라는 정변이 발생해 버린 것이다. 이것은 겨우 백제 땅에 발을 디딘 풍장에게나 그를 의지하고 왔을 일행, 나아가 왜에서 파견된 호위군의 관료 및 장수들에게는 매우 당황스러운 상황에 빠지게 하였다.

우선 풍장에게는 왕위 계승자로서 갖는 존재 가치와 위상에 대한 판단을 스스로 재점검하도록 했다. 애초 풍장의 귀환 요청에는 복신과 도침 뿐만 아니라 새롭게 국가를 재건하려고 참여한 여러 세력의 합의 아닌 합의에 따른 추대 형식을 띠는 것이었다. 따라서 그의 위상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위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이후 도침과 복신이라는 두 지도자의 부상으로 부흥세력이 사실상 양분화 된 상황에서도 양자를 조정하고 부흥세력의 동요를 안정시킬 제3의 구심점으로서 역할이 기대될 여지가 충분하였다.

하지만 자의든 타의든 공식 귀환 일정이 늦어지는 가운데 발생한 백제의 정치적 변동은 '본향(本鄕)'에 돌아온 풍장에게 전과 같은 입지를 보장할 토대가 사라지게 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이제 부흥세력은 복신의 주도하에 그를 중심으로 한 체제가 수립되어 출발한 상태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서기 660년 10월의 풍장 귀환 요청 시기와는 달리 그의 가치와

www.kci.go.kr

활용에 대한 새로운 입장과 방안 모색이 요구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그의 귀환을 요청한 것으로 나오는 복신의 관점에서 보아도 이제 풍장의 등장은 자신의 권력 행사와 정국 운영에 장애를 일으키는 존재로 인식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사료 ①처럼 복신이 맞이하러 와서 머리를 조아리고 "국정을 받들어 모두 위임(奉國朝政 皆悉委焉)"하였다는 표현은 '실력자가 명목상 군주를 맞이한 것'[37]을 뜻하는 미사여구에 불과하다고 여겨진다. 그렇다고 권력을 나눠 가질 파트너도 될 수 없는 형편이었다. 도침이 살아있고 복신과 도침이 권력을 양분한 상태라면 서로의 견제를 위해서나 아니면 자신의 구상을 추진하기 위한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서 왕이란 존재의 활용이 가능한 구석이 있었지만 한 사람에게 오로지 권력이 집중된 상태에서 국왕은 자칫 권력자의 의사나 행동을 방해하는 대상으로 인식될 따름이었기 때문이다.

아닌 게 아니라 풍장의 귀환 이후 기록들은 이러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속도로 역전되어 갔음을 추정케 한다.

> 봄 정월 신묘삭 정사에 백제 좌평 귀실복신에게 화살 10만 개, 실 500근, 솜 1,000근, 포 1,000단, 무두질한 가죽 1,000장, 볍씨 3,000곡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
> 3월 경인삭 계사에 백제왕에게 포 300단을 주었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만일 풍장의 권위가 계속 유지되었다면, 위의 천지 원년 정월의 내용은 복신에게 주어질 것이 아니라 풍장에게 돌아가야만 하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왕이라 표현된 풍장에게는 3월에 가서야 포 300단만이 주어졌다. 따라서 이 시점까지도 백제의 상황, 정확히는 풍장의 위상은 매우 유동적일 수밖에 없었던 듯하다.

37) 구대열, 앞의 책, 390쪽.

www.kci.go.kr

달리 표현하면, 왜에서 백제에게 지원될 전쟁 자금이 고스란히 복신의 수중으로 들어간 것이라 하겠다. 이 물자를 풍장이 귀국하면서 함께 가져온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왜국 지원인지를 당장 추정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1월의 물자 대부분이 복신에게 귀속된 것만은 사실이다. 그런데 만일 이 물자가 시기상으로 볼 때 풍장이 귀환하던 선단에 실려온 것이라면 그것은 더욱 의미심장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혹자에 따라서는 너무 과도한 의미 부여가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보는 데에는 풍장이 향후 부흥 백제국에서 갖는 실제적 위상을 고려할 때 크게 부합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이다.

앞에서 풍장의 귀환 시기를 서기 661년 12월로 추정하였다. 그 시점은 복신이 도침을 제거하고 정국을 주도하던 이후였다. 그런 와중인 이듬해 서기 662년 1월에 왜에서 보낸 대규모의 전쟁물자 마저도 복신에게 귀속되었던 것이다. 권력 유지에는 자금이 필요함은 동서고금의 이치이다. 더군다나 당시 백제의 상황은 전시로 더더욱 물자의 소비가 요구되던 시기였다.

애초 계획대로라면 이 물자는 풍장이 왕으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으로 활용될 성질의 것이었다. 그러나 백제지역의 정치 상황이 180도 변해버린 실정에서 계획은 그저 계획일 뿐이다. 그러므로 서기 661년 1월의 대규모 물자가 복신에게 돌아간 것, 그리고 두 달 후인 서기 662년 3월에 풍장에게는 단지 포 300단만 주어진 것 자체에 사료적 의미를 부여한다면 복신과 풍장의 위상이 서서히 바뀌어가는 현실을 간접적으로 느끼게 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서기 662년 3월 기록에 풍장이 아니라 '백제왕'이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이 시점에 이르면 복신과 풍장 사이에는 어느 정도 정치적 절충에 도달한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38] 즉 복신 측이 풍장을

38) 『삼국사기』 문무왕 2년(662) 3월에 "大赦 王以旣平百濟 命所司設大酺"라 하여 백제 측을 자극하는 기사가 나오는데, 이것 또한 복신과 풍장 양자의 관계 정상화에 일정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www.kci.go.kr

왕으로서 인정하는 대신에 풍장 측에서는 복신의 국정 운영을 방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구당서』의 표현에 따르면 “부여풍은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이라는 명목상 통수권자의 역할[39] 수행에 의견 일치를 본 것이다.

그리하여 앞선 사료 ②와 같이 서기 662년 5월에 이르러서야 풍장은 정식 ‘왕위를 이어받아(繼其位)’ 즉위하기에 이른 것이다. 왕위 등극 의식은 백제국의 재건을 알리는 뜻 깊은 자리였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다. 의식에 참석한 백제민과 부흥군 등의 대부분은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렸겠지만 천신만고 끝에 왕위에 오른 풍장과 그 측근에게는 짙은 회한과 오욕의 눈물이었을 것이고, 반대로 간난고초를 겪으며 백제국의 재건을 이끌어낸 복신과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는 환희의 눈물이었던 것이다.

4. 복신의 실패와 풍왕의 친위정변

서기 662년 5월에 부흥세력은 풍장의 왕위 즉위로서 비로소 백제국의 부흥을 완수하였다. 따라서 이후 백제국의 향방은 오로지 정권을 틀어진 복신의 공과와 연관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진용을 갖춘 백제국의 상황은 내부의 체제가 공고하게 되기 전 외부의 충격에 의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 가을 7월에 유인원과 유인궤 등이 백제 측에 방비가 없는 것을 알고는 갑작스럽게 출동하여 격파하고서 지라성(支羅城) 및 윤성(尹城)과 대산책(大山柵)·사정책(沙井柵) 등의 성책을 함락시켜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으며, 이어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하였다. 복신 등은 진현성

39) 이도학, 앞의 책, 251쪽.

www.kci.go.kr

(眞峴城)이 험준한 요충지라 하여 군사를 보태어 지켰다. 유인궤가 그들의 방비가 조금 해이한 것을 엿보고는 신라의 군사를 이끌고 밤을 틈타 성 아래에 다가가 풀을 잡고 기어올라가 새벽에 성 안으로 들어가 점거하였다. 이에 드디어 신라의 군량 수송로를 뚫었다.(『자치통감』 200, 「당기」 16, 용삭 2년)

위의 기록에 따르면 풍왕 즉위 2개월 만인 서기 662년 7월에 나·당군의 반격이 개시되었음이 확인된다. 즉 당 주둔군은 웅진 동쪽의 지라성(대전 대덕구 비래동 질현성)·윤성·대산책·사정책(대전 중구 사정동 사정성) 등[40]을 공격한 것이다. 이것들은 당군의 공격을 일제히 받은 것으로 보아 상호 보조가 가능한 형태를 이루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죽이고 사로잡은 것이 매우 많았다"는 표현으로 미루어 주둔한 백제군의 규모도 만만치 않았던 듯 하다. 그러나 백제군은 당군의 불시 공격에 변변히 대적도 못하고 패배하고 말았다. 권력의 향방에 따른 긴장과 불안 그리고 허탈감 등이 뒤섞여 부흥세력 전체에 뒤덮었을 것이다. 부흥세력 상층부의 권력 투쟁이 부흥운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조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전선의 긴장 완화와 방비 미흡 등을 초래하여 백제국은 웅진 동쪽의 주요 성들이 나·당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 패전으로 많은 백제 병사들이 죽거나 포로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제국은 남은 병사들을 진현성(대전 서구 봉곡동 흑석동산성)으로 집결하여 신라와 당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려고 노력하였다. 진현성은 지정학상 대전에서 연산으로 가는 통로로써 당 주둔군과 신라 사이를 연결하는 선상에 있어서 백제군으로서는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 곳이었다. 더군다나 중요한 성이 으레 그렇듯이 강을 끼고 있었고, 높고도 험했기에 지키기에도 쉬운 곳이었다. 하지만 백제군은 어둠을 이용하여 나·당 연합군이 성 밑까지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고 말았고, 마침내 날이 밝을

40) 심정보, 「백제부흥군의 주요거점에 관한 연구」, 『백제연구』 14, 1983, 167~170쪽.

www.kci.go.kr

무렵에 개시된 나·당군의 공격에 성을 빼앗기고 말았다.

『구당서』에서 이 전투로 살해된 부흥 백제군을 800명이라 한 것을 보면 짐작컨대 주둔한 병력은 1,000명이 넘었던 것 같다. 하지만 백제군은 진현성을 지키지 못하였고, 이는 신라와 당 주둔군 사이에 연결된 보급선 차단에 또다시 커다란 균열이 생기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 (유)인원이 군사를 더해 줄 것을 아뢰어 청하자 [고종은] 서를 내려 치주(淄州)·청주(靑州)·내주(萊州)·해주(海州)의 군사 7천 명을 일으키게 하고 좌위위장군 손인사(孫仁師)를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 유인원의 군사를 증원케 하였다.(『구당서』 199 상, 「열전」 149, 동이 백제)

승리에 고무된 유인궤와 유인원은 증원군의 파견을 요청하였고, 당 조정에서는 백제 주둔군의 완전 철수까지 고려하던 방침을 변경해서 손인사에게 산동에서 징발한 7천의 병력을 추가로 파견하기에 이르렀다.

한편, 지라성 등과 함께 진현성의 함락으로 큰 타격을 입게 되자 백제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내사지성을 근거로 하여 신라에 대한 공격을 단행하였다.

> 8월에 백제의 남은 적(賊)들이 내사지성(內斯只城)에 모여 나쁜 짓을 행하므로 흠순(欽純) 등 19명의 장군을 보내 토벌하여 깨뜨렸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위 기록은 특이하게도 이 시기와 관련된 중국 측 사서에 나타나지 않는 전투 사실로, 이는 온전히 백제군과 신라군 사이에 벌어진 전투였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데, 다분히 신라의 관점에서 "나쁜 짓을 한다"고 표현된 것을 보면 부흥 백제군의 반격이 상당하였음을 추측케 한다.

이 내사지성(대전 서구 월평동) 또한 대전-공주 간의 길목을 지키는 요충지의 하나였다. 부흥 백제군이 이 성을 근거로 당 주둔군과 신라

www.kci.go.kr

사이의 연결을 방해하자 신라는 김흠순 등 장군 19명을 동원하여 공격케 한 것이다. 그런데 내사지성을 공격하는 신라 장군의 수는 서기 661년 3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 동원된 장군 숫자보다 11명이나 많았다. 이는 신라의 공격이 대규모임을 시사[41]하는 것이기에 이에 대응하는 백제군의 규모도 적지 않았음을 추측케 한다.

하지만 서기 662년 7월에 나·당군에 의해 지라성·윤성·대산책·사정책 및 진현성 등 주요 거점 성들이 함락된 상황에서 다시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신라군의 공격으로 내사지성마저 빼앗김으로써 백제군은 금강 이동의 전략적 거점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다. 다시 말해 이는 옛 백제 땅의 북부지역 즉 오늘날의 충남 지역 일대가 거의 당 주둔군과 신라에게 빼앗겼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상황이 이렇게 변해가자 백제국 내부에 잠재해 있던 갈등이 서서히 밖으로 표출되기 시작하였다. 즉 서기 662년 7월과 8월에 있은 나·당군의 공격에 따른 백제군의 패배는 복신 정권의 위상에 상당한 균열을 가져오게 하였다.

인간이란 남과 싸워서 이겨야만 가슴이 후련해지는 동물이다. 그런 인간을 통솔해야 하는 지도자, 특히 자신의 치세를 막 시작하는 지도자는 가슴이 후련해지는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럴 수 있으면 국민들은 좋은 징조라 느끼고, 어려움에 부닥쳐도 이 사람이라면 따라가겠다는 마음을 갖게 된다. 반대로 시작부터 비틀거리면 국민이 의기소침해지기 때문에 그 후의 통치가 몇 배나 어려워진다.

도침을 제거하고 시작된 복신 정권의 시작은 순조로웠는지 모른다. 더군다나 왕위에 옹립하려고 불러온 풍장마저도 어느 면에서 완벽하게 굴복시켜 "오로지 제사만을 주관"하는 형식적인 왕에 머물게 할 정도였으니 말이다. 더불어 비록 왜의 구원군이 일부나마 도착하여 본격적으로 투입되자 당 주둔군과 신라의 준동까지 억제할 수 있을 정도였다. 앞에서

41) 노중국, 앞의 책, 2003, 242쪽.

www.kci.go.kr

본 사료 ④의 내용처럼 서기 662년 3월에 왜군 장수가 주류성[소류성]에 진을 치게 되자 "당인들이 그 남쪽 경계를 침략할 수 없었고, 신라는 서쪽 보루를 빼앗을 수 없었다"고 할 만큼 전선도 안정되는 상태였다.

그러나 당시는 국가를 회복하려는 전시였다. 즉 복신 주도의 부흥세력은 전쟁 상태에 있었던 것이다. 전쟁이란 어느 쪽이 먼저 주도권을 잡느냐가 중요하다. 주도권만 잡으면 그 후의 싸움도 유리하게 진행되기 때문이다. 반대로 주도권을 적에게 빼앗기면 아무리 애를 써도 계속 뒷북만 치고, 이래서는 결과가 안 좋다고 체념해서 가진 힘을 모두 투입하여 승부를 걸어보아도 그것조차 결정타가 되지 못한다.

이처럼 복신 세력은 주도권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따라서 당장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었다. 그 결과 천도라는 국면 전환용 카드가 제시된 것이 아닌가 한다.

> 겨울 12월 병술삭에 백제왕 풍장(豊璋)과 그 신하 좌평 복신(福信) 등은 사이노무라치(狹井連)[이름이 빠졌다]·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와 의논하여 "이 주유(州柔)라는 곳은 농지와 멀리 떨어져 있고, 토지도 척박하여 농사에 적합한 땅이 아니고 방어하고 싸울 장소이다. 여기에 오래 머문다면 백성들이 굶주릴 것이니 이제 피성(避城)으로 옮겨야 한다. 피성은 서북으로 띠를 두르듯 고련단경(古連旦涇)이 흐르고 동남으로는 깊은 늪과 커다란 제방이 막고 있다. 주위가 밭으로 둘러져 있고 도랑을 파서 빗물을 모을 수 있다. 꽃과 열매가 무성하니 삼한(三韓) 가운데 가장 기름진 곳이다. 옷과 음식의 근원이 되니 천지 사이에 깊이 굽어 들어간 곳이다. 비록 저지(低地)이지만 어찌 옮기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이에 에치노다쿠쓰가 홀로 나아가 "피성과 적이 있는 곳과의 거리는 하룻밤이면 갈 수 있습니다. 서로 이렇게 매우 가까우니 만약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나면 후회해도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무릇 굶주림은 나중의 일이고 존망이 먼저입니다. 지금 적이 함부로 공격해 오지 못하는 것은 주유가 산이 험한 곳에 있어 모두 방어 시설이 되며, 산이 높고 계곡이 좁아 지키기 쉽고 공격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지에 있었다면 어찌 견고히 지킬 수 있으며 동요 없이 지금까지 이르

www.kci.go.kr

> 렀겠습니까"라고 간하였다. 끝내 간언을 듣지 않고 피성으로 도읍을 옮겼다.(『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위의 기록처럼 진현성과 내사지성 등을 빼앗긴 뒤 4개월 만인 서기 662년 12월에 백제국 조정에서는 공식적으로 천도를 위한 회의가 열렸다. 피성 천도 이유는 주류성이 농사와 양잠을 할 땅이 아니어서 장기적으로 버틸 수 없다는 점이었다. 지금도 주류성(부안 위금암산성)의 둘레는 3,724m로 임존성보다 더 크다. 삼국시대 산성으로서는 대단히 큰 규모이다. 그런데 성벽에서 산성 안쪽을 보면 모두 비탈과 계곡으로 마을은 고사하고 사찰 하나 세울 만한 공간도 없다. 다시 말해 이 성은 도저히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곳으로 전시나 비상시에만 잠시 이용할 곳이었다.

다만 현재 주류성에 올라가 아래에 펼쳐진 경지정리가 잘된 넓고 평탄한 들을 보면 "농지가 멀고 척박하다"는 위의 서술이 거슬린다. 그러나 이 평야는 오랫동안 간척으로 다듬어진 평야이다. 1900년대 초 일본이 만든 1/5만의 지도에도 들판은 경지와 황무지가 반반 섞여 나타난다. 지도에는 바닷가 쪽에 인공 둑이 길게 표시되었는데, 이를 제거하면 삼국시대에도 이 들판은 거의 바다와 갯벌, 그리고 황무지뿐임을 알 수 있다.[42]

이에 반해 피성은 삼한(三韓) 가운데 가장 땅이 기름지고 생산력이 풍부하여 왕도(王都) 운영에 적합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피성지역의 경제적 이점이 강조된 것은 표면적으로 나·당 점령군과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백제국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던 것도 한몫을 하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피성 천도를 주도한 것은 누구일까? 한 국가의 천도에는 그에 따르는 공식적인 이유 못지않게 내면의 정치적 고려가 더 많은 작용을 한다. 천도를 통해 얻게 되는 이익이 무엇이며, 누가 더 많은 혜택을 누릴 것인지 등의 문제가 수면 아래에서 이해 당사자들 사이에 치열하게

42) 임용한, 『한국고대전쟁사』 2, 혜안, 2012, 319쪽.

www.kci.go.kr

부딪히며 조정되는 가운데서 결정되는 것이다.

피성 천도도 이러한 정치적 고려가 작용하였을 텐데, 종래에는 천도의 주체를 풍왕으로 파악[43]하였다. 실제 위의 기사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풍왕이 주도하였다고 보아도 무방하며, 이를 통해 자기의 세력 기반을 확대하려 했다고 추론할 수도 있다. 또 나아가 복신의 근거지가 주류성인데도 피성으로 천도하면 근거지를 떠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풍왕의 천도 주장에 동의한 것은 백제국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할 별다른 방법이 없었고, 설혹 피성으로 옮기더라도 그가 전권을 장악한 이상 위상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 자신했기 때문이라는 점도 주장되었다.

일견 타당해 보이지만 이렇게 보면, 풍왕파 내부의 의견 불일치에 대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없게 된다. 천도에 반대한 에치노다쿠쓰(朴市田來津)는 풍왕과 함께 왜국에서 온 인물이다. 이는 달리 말하면 친왕파라 할 수 있는 존재이다. 풍왕이 천도를 주장하는데 반대파인 복신은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견을 사전 조율하였을 풍왕파의 인물이 극력 반대하는 상황이 연출된 것이어서 어딘지 모르게 어색하다.

오히려 에치노다쿠쓰의 반대 자체에 주목한다면, 처음부터 풍왕과 그 세력은 이에 반대한 것으로 보는 게 타당할지 모른다. 물론 문장 구조는 풍왕이 주도한 듯이 서술되었지만 소위 어전회의란 것이, 그리고 그렇게 사료로 남아 있는 내용이 모두 왕의 뜻을 반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익히 알다시피 흥선대원군의 집권 시 왕명으로 집행되는 사항이 모두 고종의 의지라고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당시는 복신이 권력을 독점한 상황이었기에 천도를 강행할 수 있는 사람도 복신뿐[44]이었다.

따라서 피성 천도 또한 그의 의지가 반영되어 추진된 것으로 보는 게 당시의 정황으로 보아 더욱 순리적이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그것은 당연하게도 7~8월에 이어진 나·당군의 반격으로 실추된 복신의 정국

43) 노중국, 앞의 책, 2003, 251~253쪽.
44) 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23쪽.

www.kci.go.kr

대응에 대한 반전 노림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기대만큼 천도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 2월에 흠순과 천존이 군사를 거느리고 백제 거열성(居列城)을 쳐서 빼앗고, 700여 명의 머리를 베었다. 또 거물성(居勿城)과 사평성(沙平城)을 공격하여 항복시키고, 또 덕안성(德安城)을 공격하여 1,070명의 머리를 베었다.(『삼국사기』 6, 「신라본기」 6, 문무왕 2년)

> 봄 2월…… 신라인이 백제 남쪽 4곳의 주(州)를 불태우고, 아울러 안덕(安德) 등의 요지를 공략하였다. 이에 피성(避城)은 적이 있는 곳과 가까워졌다. 그 때문에 이곳에 군세가 머물 수가 없는 형세가 되어 다시 주유(州柔)로 돌아왔다. 다쿠쓰(田來津)가 간언한 바와 같았다.(『일본서기』 27, 천지 2년 2월)

위의 기사에 보이는 거열성(경남 거창 거열산성)·거물성(전북 남원·장수 접경의 거사물성)·사평성(전북 임실 신평면) 등[45]은 서기 661년 3월의 두량이·고사비성 전투에서 부흥군이 크게 승리하자 호응한 '남방제성(南方諸城)' 가운데 중심이 되는 성이다. 또 도침과 복신이 세력을 양분할 당시에도 복신을 중심으로 한 부흥세력은 이 '남방제성'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에 몰두하였을 정도로 복신 세력의 토대라 할 수 있는 곳이었다.

특히 거열성은 백제 입장에서는 신라 수도와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어서 곧장 신라 중심부를 겨냥할 요지였고, 신라 입장에서도 백제 지역인 전주와 무주(광주)로 뻗어나갈 시작점이었다. 통일신라기 간선교통로 중 경주에서 시작되는 동서 관통로는 북과 남에 두 노선이 있었는데 거창에서 합쳐졌다가 다시 하나는 진안을 거쳐 전주 쪽으로, 나머지 하나는 남원(거사물)-순창을 거쳐 무주(광주) 쪽으로 이어진다고 한다.[46]

---

45) 김태식, 『가야연맹사』, 일조각, 1993, 123쪽.

46) 정요근, 「통일신라시기의 간선교통로-왕경과 주치·소경 간 연결을 중심으로-」, 『한국고

www.kci.go.kr

그러므로 서기 663년 2월에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함락 당한 '남쪽의 4주(南畔四州)', 즉 거열성·거물성·사평성 등은 그 위치로 보아 거창-남원-임실로 이어지는 부흥 백제국의 남방 주요 거점이 일시에 침탈당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런데 위의 기록에는 백제가 신라군의 공격을 받아 덕안성(논산)까지 빼앗겼다고 나온다. 이 성은 백제 5방 중의 동방성으로 당의 덕안도독부가 설치되었던 곳이다. 따라서 덕안성은 위의 『일본서기』 표현처럼 군사와 행정의 '요지(要地)'였던 것이다.

덕안성이 함락 당함으로써 이제 백제국의 수도인 피성(김제) 앞에는 금마(익산)나 고사(고부) 등만이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지역들은 이미 신라의 침탈을 당해본 곳이었다. 즉, 신라군으로서도 익히 아는 군사작전 구역이란 이야기이다. 따라서 진군해 오는 신라군을 덕안성에서 막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백제군의 입장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빼앗김으로써 피성도 이제 신라군의 공격권 안에 들어가게 되었기에 백제에 준 충격은 더욱 컸다. 그 파장은 결국 주류성으로 재천도라는 연쇄반응을 일으켰다. 백제에 위기가 다가온 것이다.

이처럼 복신의 주장으로 단행된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자 지금까지 굳건하게만 여겨졌던 그의 입지에도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 상황이 이렇게 전개되자 지금까지 유령처럼 존재하던 풍왕이 서서히 정치 전면으로 나올 기회를 갖게 되었다. 여기에는 서기 662년 말에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 무기를 수리하고 선박을 갖추며 군량을 비축하는 등 왜국의 지원 태세가 가시화되는 것[47]도 일조를 하였다. 더군다나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고 주류성으로 복귀한 지 한 달 후인 서기 663년 3월에는 백제를 구원하기 위한 왜군 27,000명이 파견되기에 이른다.[48]

이제 풍왕 자신이 직접 군사적인 문제에 적극 개입하는 경우가 생기기

대사연구』 63, 2011, 169·173쪽.

47) 『일본서기』 27, 천지 원년 시세.

48) 『일본서기』 27, 천지 2년 3월.

www.kci.go.kr

시작했다. 복신이 군사적 실권을 장악하고 정국을 운영하면서도 계속 나·당군과의 싸움에서 패배하자 풍왕이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할 여지를 갖게 된 듯하며, 일정부분에서는 활동에도 제약이 사라지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운신의 폭을 더욱 확장하기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그러한 분위기는『일본서기』천지 2년(663) 5월 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풍왕(=규해)이 직접 왕궁인 주류성이 아니라 석성(石城)에까지 가서 왜의 사신을 만났다고 나타난다. 당시 왜 사신의 임무는 고구려와 '군사의 일(兵事)'을 논의하는 것이었다. 그런 왜의 사신이 풍왕을 만나서 할 일은 당연히 고구려와 왜 사이의 주고받은 내용을 브리핑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는 당연히 군사적인 사안에 해당하는데도 복신이 아니라 풍왕이, 그것도 직접 최전선에 해당하는 지역까지 가는 행동을 벌린 것이다. 이 사실은 서기 663년 2월 이후 백제 정국이 더 이상 복신의 강력한 입김 아래 놓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바꿔 말하면 이제 풍왕에게도 군사적 실권이 어느 정도 담보되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군다나 풍왕과 왜의 사신이 회견하는 가운데 풍왕은 "복신의 죄를 말하였다(語福信之罪)"고 나온다. 공식 석상에서 자기의 의사를 발표한 것인데, 이러한 공공연한 언행[49]은 이제 풍왕과 그의 행동에 동조하는 세력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정국 변화의 움직임은 복신 측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복신은 모반의 마음을 품게 되었다. 풍왕을 제거하기로 작심한 복신은 군대를 동원하는 대신에 거짓으로 병든 체 하면서 풍왕이 문병을 오는 것을 기회로 죽이려고 하였다.[50] 그러나 복신의 음모를 사전에 눈치 챈 풍왕은 복신의 계교를 거꾸로 이용하여 도리어

49) 복신의 죄는 도침을 살해하고 군사를 합병한 것과 도읍을 마음대로 옮겼던 일, 그리고 왜국 및 고구려에 대한 원조 요청을 반대한 것이라 보기도 한다.(심정보, 앞의 논문, 2007, 229쪽.)

50)『구당서』199 상,「열전」149, 동이 백제. "福信稱疾 臥於窟室 將候扶餘豊問疾 謀襲殺之"

www.kci.go.kr

그를 급습하여 사로잡아 죽이니, 바로 서기 663년 6월의 일[51]이었다.

결국, 서기 661년 12월에 풍왕이 백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벌어진 복신과의 권력 투쟁은 서기 663년 6월에 풍왕의 친위정변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다. 자력으로 권력을 획득할 수 없는 자는 항상 다른 나라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그것을 이루려 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풍왕 또한 어쩔 수 없이 이에 해당한다. 물론 이리 되었어도 시간이 허락한다면 충분히 단점을 덮어나갈 방법을 모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시는 내부적인 다툼에 빠져도 괜찮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아니란 점이 문제였다. 모든 일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함께 갖는 법인데, 이 경우에 '플러스'는 적통 왕으로써의 권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이겠지만 '마이너스'는 북으로 당 주둔군의 철수를 이끌어내고 서쪽으로는 신라군의 공세에 대항하기 위해 군사력을 양분해야 했던 백제에게 이제 그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없어진 데 있다.

5. 맺음말

서기 660년 10월 백제 부흥세력은 새로운 구심점으로 풍장의 귀환을 요청하였다. 부흥세력은 그의 왕위 계승을 통해 국가의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당시 중앙정부의 붕괴로 정국을 관망하던 지역세력들을 규합하기 위해서는 왕위의 계승을 통해 백제의 '계속'을 보여줄 필요가 있었다. 하지만 풍장의 왜국 출발 시기는 서기 661년 9월 하순이었고, 5천의 군사를 실은 선단은 그해 12월에야 백제 땅에 도착했다.

이러는 사이인 서기 661년 9월 27일에 백제는 웅진 주둔 당군과 신라 사이의 군량 수송로를 차단하는 역할을 하던 옹산성과 우술성을 함락당하고 말았는데, 이는 지역세력의 유기적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국가를

51) 『일본서기』 27, 천지 2년 6월. "王勒健兒 斬而醢首"

www.kci.go.kr

재건하려는 노력에도 부정적 효과를 미처 일부 지역세력이 신라에 투항하는 등 부흥세력의 결속을 훼손하였다. 따라서 복신은 이를 계기로 도침을 제거하는 정치 변동을 단행하였고 말았다.

풍장의 귀환 시기에 백제의 정치 상황이 180도 변해 버린 것이다. 이는 왕위 계승자로서 풍장의 위상을 추락시켰고, 왕위 계승마저 위협하였다. 간신히 정권을 잡은 복신과 타협으로 서기 662년 5월에 즉위할 수 있었지만 "단지 제사만 주관할 뿐"인 처지로 전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새롭게 출발한 복신 정권도 체제가 공고해지기 전 외부의 충격에 흔들렸다. 풍왕 즉위 2개월 만인 7월에 지라성·윤성·대산책·사정책·진현성 등을 나·당군에게 잃었고, 다시 8월에는 내사지성마저 대규모 병력을 동원한 신라군의 반격으로 빼앗김으로써 백제는 금강 이동의 전략적 거점을 대부분 상실하고 말았던 것이다. 이것은 정권의 위상에 균열을 가져왔기에 복신은 피성 천도(662년 12월)를 통해 국면을 전환시키려 하였다. 풍왕파의 반대를 무릅쓰고 단행한 천도였지만 이듬해 2월에 신라군에게 거열성·거물성·사평성 등 남방 주요 거점과 백제 5방 중의 하나인 동방성이었던 덕안성까지 빼앗기자 결국 다시 주류성으로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다.

피성 천도가 실패로 끝나자 지금까지 굳건하게만 여겨졌던 복신의 입지에도 이상이 생겼다. 풍왕이 직접 군사적인 문제에 개입하는 경우가 나타났고, 마침내 풍왕이 왜의 사신과 회견하는 자리에서 '복신의 죄(福信之罪)'를 말할 정도로 그에게 동조하는 세력도 확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풍왕과 복신의 불화는 마침내 서기 663년 6월 복신의 제거로 나타났다.

결국, 서기 661년 12월에 풍왕이 백제에 발을 들여놓은 이후 벌어진 복신과의 권력 투쟁은 서기 663년 6월에 풍왕의 승리로 끝났다. 하지만 당시는 내부적인 다툼에 빠져도 괜찮은 대내외적인 상황이 아니었다. 모든 일에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함께 나타나는 법인데, 이때의 긍정적인 부분은 적통 왕으로써의 권위를 회복하였다는 것이겠지만 부정적인

www.kci.go.kr

부분은 나·당군의 공세에 대항해야 했던 백제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사라지게 되었음을 뜻한다.

(원고투고일 : 2013. 10. 1, 심사수정일 : 2013. 11. 12, 게재확정일 : 2013. 11. 20)

주제어 : 풍장, 복신, 주류성, 피성, 부흥백제국

www.kci.go.kr

<ABSTRACT>

Establishment and Political Changes of Reconstructed Baekje: Focused on Boksin's Leading a Political Situation and King Pung's Responding to Him

Kim, Byung-nam

The reconstruction forces of Baekje asked Pung-Jang to return to the homeland as the pivot for securing Baekje dynasty's legitimacy. Pung-Jang left Wae (Japan) in September 661, and arrived in Baekje in December. During that time, however, there was some political changes within the reconstruction forces--Boksin eliminated Dochim. Thus, he return seemed in vain. His succession to the throne was threatened because of the political upheaval. He managed to compromise with Boksin, and succeeded the throne in May 662, but he remained as a nominal king without real power.

However, Boksin, though he seized the power, was embroiled in the political chaos. Baekje lost most key military bases by Shilla-Tang Combined Forces such as Jira-fortress, Yun-fortress, Deasan-stockade, Sajeong-stockade, and Jinhyeong-fortress in July 662 and Neasaji-fortress as well in August. At this, Boksin sought to settle the political disturbance by the capital to Pi-fortress (Gimje) in December 662. In February 663, however, he lost the key bases in the south such as Geoyeol-fortress, Geomul-fortress, Sapyeong, and also Deokan-fortress, one of the Five-Bangs. He was forced to retreat to Juryu-fortress(Buan) as the new capital was threatened.

As the political maneuver to move the capital city to Pi Fortress failed, Boksin power was weakened. Taking the opportunity, King Pung began involving in the military affairs and strengthened his political power to the extent to raise a formal issue of 'Boksin's sin'. Finally, he could remove

www.kci.go.kr

Boksin in June 663.

In the end, the discord between King Pung and Boksin come to an end by a political revolt. But it was not a peaceful period to be engaged in the internecine struggles. King Pung managed to restore his legitimacy as king, but he didn't have enough time to fight against the Shilla-Tang Combined Forces.

Key Word : Pung-Jang, Boksin, Juryu-fortress, Pi-fortress, Reconstructed Baekje

www.kci.go.kr